

민주당 ‘텃밭’ 호남, 당 지도부 입성 이뤄질까

당 최대 지지기반 불구 번번이 실패
정치력 실종...존재감·결집력 부재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 도전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지도부 입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대표 1인과 최고위원 5명을 뽑는 이번 전당대회의 지역 순회경선 및 권역별 권리당원 투·개표는 대구(8월6일), 인천(7일), 부산(13일), 대전(14일), 전북(20일), 광주(21일), 서울(27일) 순으로 이뤄

진다. 최종 선출은 8월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지도부 선출에 호남지역에서는 재선의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유일하게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다.
광주·전남·북은 많은 당원수와 선거때마다 이뤄진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지만,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당 지도부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호남 정치력 실종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호남 권리당원수는 광주 9만여명, 전남 17만여명, 전북 7만5,000여명 등 33만5,000여명으로,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2015년 12월 28일 당

명변경과 함께 당시 문재인 대표체제로 출범했으며 이후 김종인 비대위를 거쳐 추미애, 이해찬 대표시절까지 호남지역 의원들은 선출직 대표나 최고위원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간간이 지명직으로 직능별, 권역별 배려에 따른 최고위원을 한 자리씩 차지했을 뿐이다.
2020년 8월 29일 전당대회에서는 전남 4선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표에 오르고,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최고위원 진출에 성공하며 그나마 호남정치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2021년 4월 8일 도종환 비대위 체제부터 윤호중, 송영길, 윤호중·박지현, 현재 우상호 비대위까지 호남지역 의원들의 지도부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5월 2일 치러진 당 지도부 선출에서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 단독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했으나 득표율이 5명안에 들지 못해 탈락하기도 했다.
당원 분포와 대결 구도상 1인 2표제 투표에서 무난히 최고위원에 당선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패로 끝나면서 결집력을 보여주지 못한 호남지역 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초 송갑석 의원과 함께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김화재 의원(여수을)이 출마를 고심했으나 송 의원 단독 출마로 의견을 모았다.
그럼에도 지도부 입성은 녹록지 않은 분위기

다.
최고위원의 선거권역별 투표제 도입이 무산된 데다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놓고 ‘친명 대 반명’으로 갈리면서 지역 결집력도 약화된 상태다.
여기에 6·1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하고, 전남에서는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7석을 무소속이 차지하는 등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당 대표가 이재명 의원으로 기정사실화 된 이상 이재명계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송 의원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용현 기자



일자 | 2022. 07. 15.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기념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창립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서구을·광산구을, ‘사고지역위’ 분류

양향자·민형배 탈당에 공석
민주당, 직무대행 체제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양향자 의원과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서구을과 광산구을

을 나란히 ‘사고지역위’로 분류,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광주 서구을, 광산구을 지역위 등을 사고지역위로 각각 규정했다.
서구을은 보좌관의 성 추문 사건으로 양 의

원이 탈당한 뒤 ‘경제통’인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등 4명이 응모해 컷오프와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지난 11일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에서 경선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배수 압축에 대한 부담과 컷오프를 둘러싼 숙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위원장에 신청한 데 따른 당내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비대위로 공이 넘겨졌다. 그러나 비대위 역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공전지 불거피하게 됐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일정 조차 공지되지 않으면서 ‘특정인사 낙하산설’과 ‘특정 후보 간 양자 대결’, ‘3인 경선’ 등 설만 난무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경우 차기 총선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낙하산식 특정인사 단수 선정’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단수 선정시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계파 갈등문제점과 청산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도 감지돼 정가 잡음도 이어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을 지역위에는 송남수 무안군 지역위원회 당원협의회장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다.
송 협의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 민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지역위원장 선정자가 없어 사고지역위로 지정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만, 민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단 선출

광주시의회가 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을 재직 의원 23명, 출석의원 23명의 과반찬성으로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장에는 임미란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은 조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김나운 의원, 교육문화위원장에는 신수정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을 추천받은 결과, 정다은, 채은지, 이명노, 최지현, 강수훈, 안평환, 심철의, 심창욱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의결했다./김용현 기자

양형일 전 주엘살바도르 대사 25일부터 출판기념회·사진전



양형일 전 주엘살바도르 대사(사진)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광주 동구 아크 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 및 사진전을 연다. 수익금 전액은 뇌성마비 고아를 수용해 보살피고 있는 엘살바도르 현지 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양 대사는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엘살바도르에 재임하는 동안 직접 체험한 일을 정리해 책을 냈다.
/김용현 기자

전남매일 창간33주년을 축하합니다.

전남매일 제1기 CEO경제아카데미 동창 일동

동창 회장
박 찬 갑

명예 회장
최 갑 열

명예 회장
김 동 기

명예 회장
김 수 관

수석부회장
백 형 식

골프동호회장
김 홍 연

트래킹동호회장
이 강 천

사무총장
김 미 숙